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어”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 1:6-8]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하는 문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소망의 날입니다. 그 소망을 품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1:7)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정해진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주님께서 어느 날 몇시에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대답은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행1:11). 다만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신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나요?
2. 당신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나요?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지 연습해봅시다.